

시의 현장으로서의 '길' 과 '풍경' 을 찾아헤매는 지적 도정,

그 삼엄한 정신의 원형



《길과 풍경과 시》

허만하 지음 | 숲 | 294쪽 | 값 10,000원

1999년, ____ 3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서 서 죽는다》를 내고 지난 천년의 막바지에 마치 스톤헤지의 유적처럼 발굴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시단에 충격을 주었던 시인 허만하(71). 그의 산문은 페이터와 발레리, 이양하와 김훈의 산문이 그런 것처럼 고유하고 일정한 '경지' 를 보여준다. 그의 산문은 현실 속에 존재하되, 실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비경들을 독자 앞에 정지화면처럼 펼쳐놓는다.

운문을 대척점에 두고 말한다면 산문은 기본적으로 준엄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산문의 형식은 '로고스' 이며, 때문에 늘 이성의 조정과 간섭을 받기 마련이다. 작가는 산문을 통해 현실 속 사물들 간의 질서를 조망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해석하는 동시에 건설한다. 이와 반대로 운문은 허만하 선생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돌과 같은 사물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적 부력Patos으로 현실의 질서를 해체한다. 운문의 혀는 예들러서 현실의 배면을 투시한다. 시인은 돌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산문은 시인의 생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숙명적으로 '길' 위에서 있는 시인들의 발화 욕망은 산문적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시인들이 산문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시인이 쓰는 산문은 어떠할까?

《길과 풍경과 시》 역시 시인이 쓴 산문을 묶은 책이다. 제목만 놓고 보면 흔하디흔한 노시인의 회고 취향처럼 보일 만도 하다. 하지만 허만하 선생은 《길과 풍경과 시》를 통해 산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경의 성체를 보여줄 수 있

는지를 증명한다. 그의 산문은 의문스러운 삶을 헤아리는 해안과 그 해안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지적 통찰의 깊이를 두루 갖추고 있다. 측정하기 힘든 사유의 폭과 감각의 너비가 이 산문집을 다른 산문집과 다르게 하는 고유의 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허만하류' 라고 부르면 어떨까?

"사실은 올해 싸리 덩굴을 만났던 것은 두 번째 일이었다. 이번 가을 나들이 이 주 전에 지리산 정령치재 고갯마루에서 길을 남원 쪽으로 잡았을 때 서쪽 비탈에 자리하고 있던 구상나무 숲 못미처에서 초록색 잎새 위에 흩어져 있던 싸리꽃 애처로운 자줏빛을 만났던 것이다."

허만하 선생은 이처럼 길을 주유하면서 만나게 되는 '찰나'의 진실들, 이를테면 싸리 덩굴을 만났던 순간의 정황을 소묘처럼 정확하게 더듬어 기억하기도 한다. 그 탁월한 관찰의 기억이 곧 그가 쓰는 산문의 뼈대다. 그에 의하면 '명태'는 '한반도 가을을 먼저 느끼는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진 '바닷고기'이고, '해안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질서를 갈망하는 인간의 에스프리'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그의 이런 촌철살인의 기지는 수십 년 동안의 시 작업을 통해 단단하게 훈련된 지적 성찰에 의해 작동된다. 자유롭되 그 어느 것도 압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산문집의 화두는 '길과 풍경'으로 요약된다. 길은 '시의 현장'으로서의 길이며, 시적 '도상'으로서의 '길'이다. 그에 의하면 길이란 '낮선 것을 만나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만 들어가는 아름답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시인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기록한다. 그 눈은 '찢어진 한지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도 놓치지 않는 부지런한 눈이다. 그의 기록은 비루한 현실 그 자체 이면서 현실의 지평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움까지 포섭한다. 소쉬르, 메를로 폰티, 크리스테바 등 언어철학자들의 이론, 릴케, 귄터 그라스 등의 문학작품들을 별 불편함 없이 인용하는 그의 인문학적 교양은 그가 허량한 길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권태'나 '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의 지식은 과시하거나 행세하기 위한 권력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며 풍경의 틈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독자의 가슴을 적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풍경이란 무엇이고 그는 왜 풍경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그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풍경은 있는 그대로의 바깥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정신이 발견하는 체험의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풍경은 끊임없는 수련의 결과다. 하나의 풍경을 찾아내는 과정은 거의 시쓰기와 같다. 풍경은 그것을 알아주는 정신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그 순간이 고유한 것을 풍경은 알고 있다. 풍경은 형이상학적 가치다. 그것은 경치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풍경을 찾아 길 위에 선다.”

그에게 있어 풍경이란, 그 바깥에서 있는 관찰자까지를 포함하는 변증법적 질서체계인 것이다. 풍경 속에는 포자처럼 곳곳에 삶의 진실들이 숨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허만하 선생은 1932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고신대 의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했다. 1957년 <문학예술>지의 추천으로 등단했고, 1962년부터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시집 <해조海藻>(1969) 이후 30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이 시집으로 제1회 박용래문학상, 2000년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세 번째 시집은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2002)이며, 일본에서 출간된 시선집 <동점역銅店驛>(1980) 외에 산문집으로 <낙타는 십리 밖 물 냄새를 맡는다>(2000), <청마풍경>(2001)이 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며 시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허만하 시인이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1999년 상재한 그의 두 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가 시단에 일대 충격을 주면서부터이다. <해조>라는 첫 시집을 낸 지 30년이 지나고 낸 노시인의 두 번째 시집에 주어진 상찬은 분명 시집의 성가價에 값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비를 가리켜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최초의 발언이 있었던 순간, 즉 비가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껍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우화등선羽化登仙, 세계를 바라보는 파인더가 돌연 바뀌어버린 것이다. 독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안겨준 허만하 선생은 이후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며 산문집 <낙타는 십리 밖 물 냄새를 맡는다>, <청마풍경>, 시집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를 연이어 상재했다.

이번 산문집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와 산문들은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삶의 조건으로서의 길과 풍경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인간과 문명, 나아가 생명과 우주에 대한 심미적 통찰이다.

그의 산문 정신은 '말하여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해야 하는' 숙명적인 시인의 책무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에 그가 쓰는 산문의 행간에 담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

김도연 기자